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2012년도 표어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seoulchurch.or.kr

어린이주일메시지

## 들으라 이스라엘!

자녀 교육을 가장 잘 하는 민족으로 유대인들을 꼽습니다. 실제로 오고가는 세대에 걸쳐 모든 영역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교육 방법에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소위 “쉐마 이스라엘,” 즉 “들으라 이스라엘”로 시작되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 교육의 생명처럼 지켜오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부지런히 배우고, 묵상하며, 암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들의 자녀 교육은 어떤가요? 우리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고, 결혼 잘 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학교교육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든지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한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소위 인생의 고속도로를 탄다고 해도 그들이 행복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 그리고 우리와 매일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성장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적을 위해서 매일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고 꿈과 비전 가운데 성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라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성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학교성적에 상관없이 우리 자녀들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분명히 세워진다면, 우리 자녀들의 학업성적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공부하는 아이들과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는 아이들은 결코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서울교회의 미래 교육을 생각해 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우리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서울교회 어린이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꿈을 꾸고, 놀라운 열정으로 매일을 살아갈 서울교회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 박노철



# 오늘은 어린이 주일

## 교육1국 다양한 행사로 축하해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다양한 행사로 하나 님께 감사한다. 교회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 어린이들 이 좋아하는 맛있는 자장면을 점심으로 준비하여 함 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특히, 교육1국은 각 부서별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 하여 축하한다. 유년부는 “달란트시장”을 701호에서

오전 10시 10분에 갖는다. 또한 초등부는 오전 10시 30분 한티공원에서 야외활동을 갖는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품에 우리 친구들을 많이 전도하여 칭찬받고, 말씀으로 잘 양육받는 자녀 가 되도록 기도한다.

# 11대 장로 · 12대 안수집사 · 11대 권사 선출

## 5월 13일 (주) 찬양예배 후 공동의회에서

지난 주 찬양예배 후 가진 제직회에서 20명의 장로 후보를 결정하였다. 장로후보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우리 교회는 5월 13일(주) 찬양예배 후 제 11대 장로 · 제12대 안수집사 · 제11대 권사 선출을 위한 공동 의회에서 장로 10명, 안수집사 50명, 권사70명을 선출 한다. 장로 · 안수집사, 권사 명단은 오늘 순례자에 삼 지로 배부된다.

장로는 공동의회에서 2/3 득표, 안수집사 · 권사는 1/2득표자 중 종다수로 선출 된다.

공동의회는 서울교회 등록교인으로 세례교인(18세 이상)들은 참석할 자격과 의무를 가진다. 모두가 기도 로 준비하여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후보들이 선 출되도록 한다.



1. 양춘경



2. 최광성



3. 최양진



4. 최형열



5. 송인권



6. 이계홍



7. 이동만



8. 김규태



9. 김금준



10. 이강진



11. 김재근



12. 원용규



13. 인인호



14. 오지열



15. 오유식



16. 서경학



17. 이영조



18. 주동재



19. 김광룡



20. 최규초

## 장년부 특강

1부예배 후 - 강사: 김철홍 목사



김철홍 목사

장년부에서는 지난 주에 이어 특강을 한다. 오늘 특강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무엇인가?” 이다. 강사는 지난 주에 이어 김철홍 목사가 서며, 1부 예배 직후 본당에서 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 - 서울교회 엘리베이터 - 이렇게 이용합시다

교통약자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과 휠체어 등의 신체보장구를 이용하는 성도와 영유아부 어린이)들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양보합니다.

## 목사님, 궁금해요!

###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47]

(문 42) 레위기 11:6에 ‘토끼는 새김질은 하되’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답) : 레위기 11:5에서 사반은 부정한 동물로 말하면서 그 이유는 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지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정결한 동물은 먹을 수 있는 것으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새김질하는 것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리는 기준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반(KYV.에서는 토끼로 NASB.에서는 오소리로 번역됨)은 정말 새김질을 하는 동물인가 하는 질문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절에서도 토끼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실상 먹었던 것을 토하여 새김질하는 일은 없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입을 움직이면서 새김질하는 것 같은 동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토끼가 그 이빨이 길 어지지 않게 갈기 위하여 그 같은 입놀림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입놀림이 새김질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로 토끼의 새김질은 해부학적 표현이 아니고 새김질하는 모양을 관찰적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동작을 새김질이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입의 모양을 가지고 말한 것뿐이고 새김질과 관계된 위(胃)의 구조 같은 것을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새김질하는 동물은 4개의 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 위장에서 입으로 뱉어내어 다시 씹어 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반이나 토끼는 새김질하는 4개의 위를 가진 동물이 아니지만 실제로 부정한 동물로 간주된 것입니다. 더 큰 가축처럼 초식을 할 때 턱의 운동이 마치 새김질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새김질하는 것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김질하고 굽도 갈라진 짐승만이 깨끗하다 하셨으니 짐승으로서 이 두 가지 정결 조건이 구비되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 가운데 한 가지만 구비되고 다른 한 가지가 없는 종류는 불결한 짐승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성결을 파수함에 있어서 타협주의는 금물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주 계속)



###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멋진 아이가 될래요!



장하량 (초등부 5학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어린이날을 만드신 방정환선생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셔서 어린이들이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날을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날만은 어린이들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들을 가장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어린이들을 안아주셨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존재라고 알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어린이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어린이처럼 멋진 아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하느라 바쁘고, 축구하느라 바쁘고, 친구들과 노느라 바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하려고 합니다. 주일날 예배는 진짜로 잘 드려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라고 엄마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엄마랑 약속했습니다. 예배시간에 다른 생각이 나도 예배드릴 때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예배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얼마전 로켓을 날아가게 하는 힘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내는 원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 힘은 풍선에 공기를 채우고 풍선을 놓았을 때 하늘로 날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라고 합니다. 엄마는 이 추진력이라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고 합니다. 이번 어린이날에는 어떤 선물을 받을까 기대하기보다는 예배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잘 듣는 아이가 되기로 다짐해 봅니다.

### 5월이 되면

박예진 (초등부 5학년)



5월이 되면 저는 많은 기대를 합니다. 5월에는 제가 좋아하는 꽃도 많이 피고 나무의 새싹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기 때문이에요. 또한 5월은 모든 어린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어린이날도 들어오고 내가 태어난 의미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지혜롭고 생각이 깊으며 영리한 아이들이 5월에 태어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주의 어린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미래사회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나라를 사랑하며, 티 없이 밝고 바르며,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방정환선생님께서 어린이날을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어린이날이 단지 선물을 받고 마음껏 노는 공휴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요.

우리 어린이들이 장차 우리나라와 세계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사랑과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세요.

###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김장겸 (유년부 3학년)



엄마, 아빠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쓴 것이랍니다. 제가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는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부모님이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저랑 같은 나이인데도 돈을 벌어야 하고 학교에 다니지 못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친구들과 공부하고 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교회에 다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교회에 다니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알 수 없었으니까요. 예수님은 특히 제가 엄마한테 어이없게 혼나거나 친구들과 다투서 마음이 너무 슬플 때 제 편이 되어 주시니까요.

셋째, 화목한 가정을 유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엄마, 아빠한테 많이 혼나고 때때로 동생이 미워서 괴롭히지만 저희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저에게 이렇게 즐겁고 재미있는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성정도 열심히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아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많이 많이 사랑해요.

### 한가족 한마음잔치를 준비하며

### 온 가족이 모여 구원 받으세요!



오윤결 집사(1교구)

대치 1동이 속해있는 1교구와 대치 현대, 은마 아파트를 제외한 대치 2, 4동이 속해 있는 16교구가 연합하여 한 가족·한마음 체육대회를 5월 12일 (토)에 아가페 타운에서 개최 합니다.

한가족·한마음 체육대회를 교구별로 개최 한다는 뉴스가 발표되는 3월 중순부터 1교구와 16교구의 실행위원들은 매 주일마다 모여서 말 그대로 "한가족"이 함께 하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갖가지 아이디어들을 내어 놓으며 치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번 체육대회가 무엇보다도 교구에 속해있는 다락방 가족 구성원들이 한사람도 소외됨 없이 다 참여하여 서울교회 한가족으로서의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저희는 "자녀"들을 참여 시키는 것에 특히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자녀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사행심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인기가 많은 아이들을 골라 교회학교별로 푸짐한 행운상을 준비 하였습니다. KBS공채 출신의 전문 MC가 진행하는 행사에서 자녀들이 결코 지루해 하거나 심심해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를 살며 삶에 지치신 부모님, "학벌 우선주의"를 살아가며 오로지 대학만을 바라보는 자녀, 그 와중에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속절없이 파괴되고 무너져만 가는 현실 속에서 "청년 교회"도 "기성세대 교회"도 아닌 "가족 교회"의 필요성이 절실한 요즘, 사랑하는 서울교회가 대치동에 자리를 잡게 된 것도, 이종윤 목사님께서 단단히 다져 놓으신 기반 위에서 박노철 목사님께서 시작 하시는 다락방 사역도 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 하시고 예정하신 일이 있음을 새삼 느끼며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그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하며 1교구 16교구 다락방 식구들에게 전합니다.

"온 가족이 오셔서 구원 받으세요!!"

편지왔어요 - 마다가스카르에서

# 예수그리스도가 증거되고

2012년은 지난 10년 동안 몸 담고 함께 동역하며 사역했던 아프리카 오지 선교회를 떠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금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수고했던 믿음의 동지들을 어떤 커다란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이곳 말라가시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의 차이로 떠나야만 했기에 슬프도 컸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역하면서 분리되지만 여전히 협력하는 관계로 사랑하지만 떠나는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 1. Ficinana Be dia Be association 설립



2005년 마다가스카르에 와서부터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부족과 오지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며 그 지역의 사람들의 삶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풍성하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는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2012년이 시작되면서 주님께 받은 달란트가 각각인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달란트를 한 그릇에 담아 주님을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1월 11일부터 매주 수요일 새벽 6시부터 모이는 열심을 내어 정관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정부에 등록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여 이제 정부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2. Ambatondrada Mobile Medical Service

암바톤드라다마 지역은 마다가스카르에서 해발 2000미터가 넘는 가장 높은 지역의 마을입니다.

의료팀은 2일간의 사역을 통하여 164명의 환자를 치료하였는데 119명의 내과 환자, 37명의 치과 환자 그리고 8건의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복음 전도팀은 설교와 가가호호 방문 전도, 일대일 전도 및 영화상영 등을 통하여 많은 새로운 결신자들을 만들어 내었고 그 중 36명은 향후 지속적인 성경



아직 1개월밖에 되지 않은 혈관종을 앓고 있는 아이로 수술을 기다립니다. 기도부탁드립니다.

공부를 하기로 하여 다시 방문하여 성경공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도제목

1. 마다가스카르 현지 교회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독 단체들의 계획되고 준비된 사역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잘 진행되고, 생명의 빛이 예수그리스도가 말라가시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계시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2. 마다가스카르 22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보다 광범위한 이동진료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보내주기로 한 이동진료차량이 잘 준비되고 마다가스카르에 무사히 도착하여 주님의 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관련된 부서들과 담당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장 적절한 차량들과 탑재될 기기들의 선정과 준비가 빠른 시간 내에 잘 이루어지고 운반과 이곳에서 통관과정도 문제없이 잘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3.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경화(간호사) 선교사를 지원군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밀알복지재단에서도 간사를 보내주셔서 저희의 행정을 돕게 되었습니다. 이경화선교사와 강영숙 간사가 잘 적응하고 언어에 진보가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4. 연달아 사역일정이 잡혀 있는데 팀원들이 모두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 과정이 잘 되도록, 수천 킬로 떨어진 사역지로 이동하고 사역할 때 안전을 지켜 주시고 우리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예수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전도팀들의 사역 가운데 선포된 말씀들이 열매를 맺고 믿음이 더욱 자라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5. 아이들이 4월 21일에 케냐로 돌아갔습니다. 준

행, 지행, 진행이가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큰아들 준행이의 대학 입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한국에 있는 의대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준행이가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재훈, 박재연, 준행, 지행, 진행 선교사 올림.



##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5월6일(주) 산정현교회 주일1,2부에 배 설교한다. 5월8일(화)부터 11일(금)까지 신반포중앙교회 사경회를 인도한다. 5월12일(토) 연세대 졸업50주년 동문재상봉 행사에 참여한다.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월례모임을 소집한다.

■ 개업: 청년1부 안승민 성도 카페 세나클(Cafe Cenacle) 의정부 중앙로점 Tel)031-846-0055 H.P)016-474-0613

■ 주간식당봉사: 제1스데반(5.6) 제2스데반회(5.13)

■ 금주의 식사: 자장면 (교회 제공)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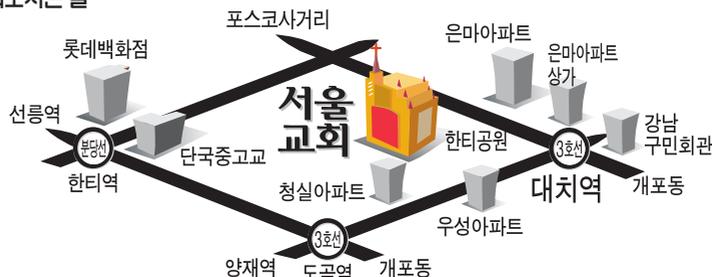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서울교회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전을 품고 밝고 씩씩하게 자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리더들이 되도록
2. 5월 13일 주일찬양예배 후에 있는 항존직 선거를 통해 귀한 일꾼들이 세워져 서울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3. 계속 이어지는 "한 마음 한 가족 잔치"를 통해 각 교구가 하나 되고 다락방 사역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 교회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